

### 안동중친회 지회장협의회 총무협의회 당면과제 간담회 개최

안동중친회(회장 권철환)는 안동중친회의 당면과제(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해 지회장협의회와 총무협의회를 각각 소집,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월 30일 오전 11시 안동시 축제장길 323-18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하늘소식당'에서 오전에는 안동시내 지회장 20여 명을, 오후 6시에 총무협의회 회원 50여 명을 각각 초청, 당면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권철환 회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자 추천문제, 신년인사회 개최 건, 안동권씨회관 대수리 등 세 가지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장 출마 예상자 가운데 안동권씨가 여러 명 거론되고 있어서 안동중친회에서 검증, 추천해 달라는 중앙의 요청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오는 3월 1일 안동권씨 종친회 신년인사회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회장단은 수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연중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년처럼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안동권씨회관을 지은지 30년이 넘고 낡은데다 오래돼 비가 세거나 창틀이 떨어지고 엘리베이터 마져 없어서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고쳐치면 약 2억 원의 예산



이 들어 이에 필요한 돈은 모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모금운동을 펴고 있던 중 작년 4월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생, 안동으로 번지는 바람에 피해가 막심, 모금운동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오전 권기욱 지회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뜻 깊다"고 말하고 바뀐 지회장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기도 했다. 오후엔 권동현 총무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고

맙고 종친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협의회 회의 때 권기창 안동시장 부부,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가 참석, 세 사람이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점심과 저녁때에는 불고기를 곁들여 식사를 하였으며 저녁 총무협의회 회의 때는 권철환 회장, 권동현 회장, 권갑년 사무국장 등 세 명이 돌아가면서 건네제의를 하기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 안동중친회 부녀회 회장단 및 부회장단 간담회 개최



안동중친회(회장 권철환)는 안동시내 부녀회장 및 총무, 수석부회장과 상임부회장 부회장단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월 3일 오전 11시 안동시 축제장길 323-18 '안동하늘소식당'에 시내 24개 읍, 면, 동 부녀회장과 총무 등 30여명을, 이날 저녁 6시에 수석부회장과 상임부회장 그리고 부회장 등 50여명을 각각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것은 권철환 회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권문에서 시장후보자가 3명이 출마할 예정으로 있어서 안동중친회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 추천서를 국회의원실로 보내 단일화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30년 전에 지은 안동권씨회관이 낡고 오래돼 비가 새고 창틀이 떨어지는 등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종친회 원로원 회원들이 오르내리기

힘이 든다는 것이다. 이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2억~3억 원이 소요돼 모금운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밖에 오는 3월 1일 오전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계획대로 개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손복영 부녀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년의 경우 안동권씨를 파(派)로 나누어 선거가 끝났는데도 파끼리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서 파를 무시, 안동권씨 끼리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점에 부녀봉사대 회장은 "부녀회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도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저녁 모임에선 권기창 안동시장 부부,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가 참석,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했다. 아울러 안동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 권기원, 권영백, 권용덕, 여주희 등이 붉은 목도리를 매고 명함을 돌리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 간담회에선 권정달 옹도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저녁식사 값을 모두 부담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로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 노년의 품격, '이기는 말'보다 '살리는 말'이 먼저다

40대에게는 대비하는 지혜를, 5060에게는 인생의 품격을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복아공파)



은 인정 하나가 상대를 나를 돕는 아군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득도다조(得道多助)'의 실천입니다. 도를 얻은 자는 돕는 사람이 많다는 뜻처럼, 내가 상대를 살리는 말을 건넬 때 상대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말은 마음의 초상화이자, 노후의 확실한 상수(常數)다 수학에서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常數)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평안과 행복을 결정짓는 불변의 상수는 바로 '말'입니다. 38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리더와 신중년을 만났습니다. 그중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분들의 공통점은 지식의 양이나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엄격히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위해 재정적 변수나 건강이라는 변수에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관계를 무너뜨리고 고독을 부르는 것은 감정에 휘둘러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을 가장 소중한 경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자, 마음의 초상화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품격이 곧 노후의 품격입니다.

본심의 투명함이 관계의 운(運)을 부른다 관계 경영의 생명은 투명성입니다. 많은 4060 세대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본심을 포장한 채 날카로운 조언을 건넵니다. 하지만 지출을 기록하지 않는 습관이 가계 부채를 부른다, 내 말의 의도를 투명하게 살피지 않는 습관은 관계의 불신을 낳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려는지, 내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비난과 가르침의 뿌리에는 대개 "나를 알아달라"는 깊은 결핍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고생했는데 너는 왜 몰라주니?" 라는 식의 말은 순간적인 분출구는 될지언정, 관계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소모적인 감정 분출보다 "네가 있어 참 다행이다." 라는 풍요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운(運)은 결핍을 토로하는 곳이 아니라, 풍요를 나누는 말 위에 머무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투명해질 때 비로소 관계의 선순환과 운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상대를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살리는 말'의 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교사로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을 가르치며 목격한 것은, 5060 세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적 보상보다 '존재의 인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내 방식대로 고치려 드는 것은 하수의 경영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의 강점을 포착하여 질문합니다. "그 비결이 뭐야?"라는 짧

40대에게 이 지혜는 다가올 인생의 후반전을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은 AI가 대신할 수 있지만, 사람의 자존감을 깨우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영술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푸는 5분의 용기, '졸탁동시'의 대화법 관계를 뒤흔드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틈새로 파고드는 사소한 '섭섭함'입니다. 섭섭함은 미움이 아니라, 아직 잘 지내고 싶은 기대의 흔적입니다. 이 섭섭함이 쌓여 오해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전,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섭섭한 것이 있느냐?" 고 묻는 낮은 자세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리더의 용기입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찢고 어미 닭이 밖에서 맛따뜨려 깨는 '졸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가 대화에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다가갈 때, 단절되었던 마음의 다리가 다시 놓입니다. 이 5분의 용기가 노년의 고독을 예방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맑은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숨 쉬는 공기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답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결국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인생 자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40대에게는 고독을 대비하는 지혜를, 5060에게는 인생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말은 관계의 공기를 정화하고, 그 공기는 곧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풍경을 결정합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옛 지혜를 오늘에 비추어 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 2막의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답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 추밀공파 문충공 종중 정기총회



추밀공파 문충공 종중(회장 권오협) 정기총회가 2월 25일 11시 읍성군 읍내읍 308-1에 위치한 영빈관에서 총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권오협 회장을 재추대하기로 의결하였다. 권오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중의 발전과 선조님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는 추밀공파 회관 마련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결의하여 추밀공파종회 회관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권경석)에 헌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권오협 문충공 회장

## 2026년 始祖 太師公 春享祭 案内

2026년도(權紀 1097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일 시 : 2026년 4월 6일(토), 오전 10시
-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안동 054-854-2256

※ 춘향제에 참제하는 족친 여러분께서는 당일 입재하여 참제하시기 바랍니다.

※ 춘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영창